

2019년 5월 21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화웨이 이슈 부각된 여파로 하락 구글, 퀄컴, 인텔 등 화웨이에 대한 부품, 서비스 중단 발표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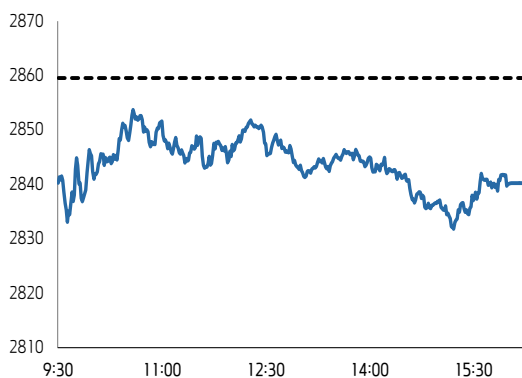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02% 급락

미 증시는 미국 IT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이유로 화웨이에 대한 부품 또는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자 하락. 미국 기업들의 행동으로 중국내 미국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대 중국 매출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매물이 출회. 다만, 외환시장 안정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금융주 등이 강세를 보이며 다우지수 하락폭은 제한(다우 -0.33%, 나스닥 -1.46%, S&P500 -0.67%, 러셀 2000 -0.70%)

지난 주말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표를 했음.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 그러나 곧이어 구글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으로 화웨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 이는 향후 화웨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구글의 G 메일,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에 접근이 금지. 관련 소식 전해지자, 중국내 여론은 애플(-3.13%)을 비롯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대. 결국, 지난 주 트럼프 정부의 정보통신 서비스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 사태 발표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임.

이런 가운데 화웨이에 서버용 반도체칩을 제공하는 인텔(-2.96%), 스마트폰용 모뎀 등을 제공하는 퀄컴(-5.99%), 통신망용 칩을 제공하는 자일링스와 브로드컴(-5.97%) 또한 화웨이에 제품 공급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옴. 화웨이는 이에 대응해 부품 재고가 3 개월 운영할 정도로 남아 있고, 한국과 일본 등에 부품 조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 문제는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부품 및 서비스 조달이 중단되는 경향을 보이자, 중국에서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크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는 향후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 매출 감소는 불가피해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를 높이고 있음. 특히 화웨이는 매년 200 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구매하기 때문에 미국은 가장 큰 고객중 하나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진핑 주석이 전일 희토류 관련 업체를 방문해 시장 일부에서는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는 등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055.71	-0.00	홍콩항셱		27,787.61	-0.57
KOSDAQ		702.08	-1.69	영국		7,310.88	-0.51
DOW		25,679.90	-0.33	독일		12,041.29	-1.61
NASDAQ		7,702.38	-1.46	프랑스		5,358.59	-1.46
S&P 500		2,840.23	-0.67	스페인		9,199.70	-0.87
상하이종합		2,870.60	-0.41	그리스		717.21	-1.66
일본		21,301.73	+0.24	이탈리아		20,539.87	-2.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관련주 급락

알파벳(-2.06%)이 화웨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애플(-3.13%)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불어 퀄컴(-5.99%), 인텔(-2.96%), 자일링스(-3.56%) 등도 화웨이에 대한 부품 제공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향후 대 중국 매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이 결과 중국향 수익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매출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수익중 대 중국 익스포저가 73%에 달하는 원리조트(-1.02%)가 부담을 느끼자 MGM(-2.09%) 등 카지노 업종이 부진했다. 전체 수익중 65%를 차지하는 퀄컴, 54%를 차지하는 브로드컴(-5.97%), 51%를 차지하는 마이크론(-3.99%) 등도 동반 하락 했다. 한편, 5G 인프라 성장에 의존도가 높은 스카이웍(-2.88%), 쿼보(-4.16%)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블리자드(-5.99%), EA(-4.70%)등 게임업종도 대 중국 매출이 급감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반면, 스프린트(+18.77%)는 T-모바일과 합병이 승인되자 급등 했다. AT&T(+1.23%), 버라이즌(+1.58%) 등 통신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85%	대형 가치주 ETF(IVE)	-0.56%
에너지섹터 ETF(OIH)	-0.13%	중형 가치주 ETF(IWS)	-0.61%
소매업체 ETF(XRT)	-0.33%	소형 가치주 ETF(IWN)	-0.66%
금융섹터 ETF(XLF)	+0.11%	대형 성장주 ETF(VUG)	-1.15%
기술섹터 ETF(XLK)	-1.74%	중형 성장주 ETF(IWP)	-0.9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71%	소형 성장주 ETF(IWO)	-0.77%
인터넷업체 ETF(FDN)	-0.93%	배당주 ETF(DVY)	-0.60%
리츠업체 ETF(XLRE)	-1.6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5%
주택건설업체 ETF(XHB)	-0.9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2%
바이오섹터 ETF(IBB)	-1.40%	미국 국채 ETF(IEF)	-0.17%
헬스케어 ETF(XLV)	-0.05%	하이일드 ETF(JNK)	-0.07%
곡물 ETF(DBA)	+1.32%	물가연동채 ETF(TIP)	-0.13%
반도체 ETF(SMH)	-3.97%	Long/short ETF(BTAL)	+0.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8.55	+0.07%	+0.94%	-7.60%
소재	337.02	-1.46%	-0.07%	-6.27%
산업재	627.59	-0.28%	+0.66%	-4.56%
경기소비재	913.17	-0.69%	+1.15%	-3.05%
필수소비재	592.18	-0.22%	+1.51%	+1.20%
헬스케어	1,021.56	-0.04%	+1.23%	+2.74%
금융	446.13	+0.14%	+0.95%	-1.41%
IT	1,297.15	-1.75%	+0.97%	-5.21%
커뮤니케이션	162.83	-1.17%	+1.65%	-2.60%
유틸리티	297.46	+0.17%	+0.23%	+2.46%
부동산	222.72	-1.62%	-0.29%	+2.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파월 연준의장 발언에 따른 달러/원 환율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6% MSCI 신흥 지수 ETF 도 0.42%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996 계약) 여파로 1.60 하락한 263.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2.5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2% 급락 했다. 화웨이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향후 대 중국 매출이 급감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대체제로 예상 되었던 독일을 비롯한 유럽 반도체 업종 또한 하락한 점도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왔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다만, 한국 증시는 전일 일부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며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달러화가 약세보이는 등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안정을 찾은 점은 긍정적이다. 달러화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고용시장이 강해도 인플레 자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 데 이어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도 “인플레 없이 고용이 강하면 경제에 긍정적” 이라고 언급 했다. 대체로 연준위원들은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높지 않음을 시사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해 국채금리가 상승 했다. 이렇듯, 외환 시장과 채권시장이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시각 오전 8 시 파월 연준의장이 미국 경제를 주제로 연설이 준비되어 있다. 이 결과 달러화 변화에 따른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변화에 따라 한국 증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국가 활동지수 부진

4 월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는 전월(+0.05)나 예상치(-0.10)을 하회한 -0.45 로 발표되었다. 3 개월 평균 또한 전월(-0.16)을 하회한 -0.22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85 개 경제지표 중 33 개는 전월 보다 개선되었으나, 52 개는 악화되는 등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채권시장, 외환시장 변화 제한

국제유가는 미-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한 점이 부담이었다. 여기에 지난 주말에 개최되었던 감산 합의 이행 점검 회의에서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올해 감산 합의를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표가 나온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가 높아지자 상승이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무역분쟁 격화 우려 불구 연준위원들의 저인플레이 시사 발언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과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경계심리도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무역분쟁 격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인민은행이 달러당 7 위안에 대해 불편함을 시사하는 구두개입을 단행한 결과로 추정한다.

국채금리는 연준위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에 힘입어 상승 했다. 지난 10 일 “관세 장기화시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했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 올해 인플레이는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금리 동결할 것” 이라고 주장 했다. 지난 7 일과 9 일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클라리다 연준부의장은 “강한 고용시장이 인플레이 압력을 높이지는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해 금리 동결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지난 14 일 경제는 좋지만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는 “인플레이 없이 고용이 견고하면 경제는 긍정적이다” 라고 주장 했다. 한편, 한국 시각 오전 8시 파월 연준의장의 미국 경제를 주제로 연설이 준비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힘입어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3% 하락 했으나, 철근은 1.14%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3.10	+0.54	+3.37	Dollar Index	97.944	-0.05	+0.64
브렌트유	71.97	-0.33	+2.48	EUR/USD	1.1165	+0.06	-0.51
금	1,277.30	+0.13	-1.88	USD/JPY	110.04	-0.04	+0.68
은	14.445	+0.40	-2.25	GBP/USD	1.2725	+0.01	-1.80
알루미늄	1,797.50	-2.15	-0.64	USD/CHF	1.0086	-0.24	+0.22
전기동	6,029.00	-0.45	+0.30	AUD/USD	0.6908	+0.58	-0.52
아연	2,575.00	-0.96	+0.31	USD/CAD	1.3431	-0.20	-0.35
옥수수	389.00	+1.50	+9.12	USD/BRL	4.1001	+0.03	+2.66
밀	478.25	+2.85	+9.44	USD/CNH	6.938	-0.16	+0.37
대두	831.75	+1.22	+3.64	USD/KRW	1194.20	-0.13	+0.56
커피	89.90	+1.01	+0.33	USD/KRW NDF1M	1192.58	-0.07	+0.4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414	+2.30	+1.24	스페인	0.881	+0.90	-10.80
한국	1.847	+2.20	-3.00	포르투갈	1.054	+0.80	-9.60
일본	-0.043	+0.90	+0.50	그리스	3.409	-1.00	-14.00
독일	-0.087	+1.70	-1.70	이탈리아	2.698	+4.00	-0.10